

배포 즉시

유틸리티(Utility)-성남시, H2Gen® 수소 실증·인증 프로젝트 체결

*세계 선도 청정에너지 시장인 한국에서 경제적 산업 탈탄소화와 수소
혁신을 촉진할 “프런티어 코리아(Frontier Korea)” 기공*

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/ 대한민국 성남 – 2025 년 10 월 28 일 – 미국에 본사를 둔
글로벌 경제적 산업 탈탄소화 기업 ****유틸리티(Utility)****는, 자사의 독자적이면서
검증된 **H2Gen®** 기술 플랫폼의 상용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, 오늘 성남시청에서
성남시와 함께 성남수질복원센터 내 **H2Gen 실증·인증 플랜트**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
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.

성남시는 순환경제와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을 이어온 도시로, 이번
프로젝트인 **“프런티어 코리아(Frontier Korea)”** 시설은 미국 외 지역에서 최초로
구축되는 실증·인증 거점이 된다.

이번 협약은 바이오가스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수입
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우선시하는 **대한민국 수소경제 로드맵**을 뒷받침하기
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다. 한국은 온실가스 저감과 폐기물 관리 고도화를 위해 유기성
폐기물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**바이오가스 프로젝트**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
있다.

프런티어 코리아 프로젝트에 따라, 유틸리티는 **연료전지급(FC-grade) 99.995% 이상
고순도 수소**를 생산하는 **청정-탄소(클린 카본) 수소 생산 플랜트**를 구축·운영하고, 생산
수소를 성남시 소재 **E1 수소충전소**에 공급하여 **수소버스·트럭·승용차** 등 중·대형
모빌리티에 활용한다.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수소모빌리티 시장 중 하나로,
유틸리티는 **H2Gen 기술의 잠재 수요가 매우 크다고** 보고 있다. **H2Gen**은 유기성
폐기물의 혐기성 소화로 생성된 원료 바이오가스의 화학적 에너지를 활용해, 전기를
사용하지 않고(비전기식) 전기화학적 공정을 통해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한다.

이번 프로젝트는 또한 **한국가스안전공사(KGS) 기준**을 충족함으로써 H2Gen® 수소 생산기술의 **국내 인증**을 추진해 한국 내 다수 산업 부문으로의 **신속한 확산** 기반을 마련한다. 한국은 바이오가스, 철강, 정유, 석유화학 등 **H2Gen의 핵심 타깃 시장**이 풍부한 전략적 중점 국가다. 유틸리티는 최근 성남시에 **현지 법인 Utility Korea LLC**를 100% 자회사로 설립하고, ****외국인투자촉진법(FIPA)****에 따른 **적격 투자**도 완료했다.

임종철 성남시 부시장은 “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하수처리의 역할을 넘어 **청정에너지 기반을 구축**하는 혁신적 도약”이라며, “이를 통해 **탄소중립, 자원순환, 청정에너지 인프라, 국제협력**을 한층 진전시켜 성남시의 **ESG 가치**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. 유틸리티와의 협력은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향한 지속적 의지의 표현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유틸리티는 10월 10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**프런티어(Frontier) 시설**의 운전을 개시했으며, 다양한 원료가스에 대한 **장주기(24/7) 연속 운전**을 통해 **H2Gen®의 범용성과 산업 적용성**을 입증하고 있다. **프런티어 코리아** 시설은 이 검증된 **모듈형 플랜트의 동일(near-replica) 사양**으로 구축된다.

유틸리티의 파커 믹스(Parker Meeks) 대표이사 사장(Chief Executive Officer & President)은 “**탈탄소화를 선도**해온 한국은 당사의 최우선 전략 시장”이라며, “특히 성남시의 과감한 결단과 협력에 박수를 보내며,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**H2Gen® 기술이 한국의 여러 산업 부문에서, 우선 중대형 모빌리티부터, 게임체인저급의 경제적 탈탄소화**를 실현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회사 소개

About Utility Global

****유틸리티(Utility)****는 철강, 모빌리티, 정유, 석유화학, 상류부문(O&G) 등 산업 전반의 **경제적 산업 탈탄소화**를 구현하는 실용 해법을 제공한다. 회사의 혁신적 **H2Gen® 기술**은 **산업 오프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에너지를 활용**하여,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독자적 전기화학 공정으로 현장(On-site)에서 용도별 고순도·저~음(負)

탄소집약도 수소를 물로부터 생산한다. 아울러 고농도 CO₂ 스트림을 함께
생성해 탄소포집(CCUS) 비용을 제거하거나 대폭 절감할 수 있다. H2Gen 시스템은
모듈식·스케일업 용이·운전 유연성을 갖추고, 초소형 설비 면적으로 기존
난감부(難減部, hard-to-abate) 자산에 무정지 통합이 가능하여 실질적·경제적
탈탄소화를 구현한다.
유틸리티는 **산업 탈탄소화 전문 사모투자사인 아라 파트너스(Ara Partners)**의
포트폴리오 기업이다. 자세한 내용은 **www.utilityglobal.com**을 참조하시기 바란다.

About Ara Partners

아라 파트너스(Ara Partners)는 산업 탈탄소화에 초점을 둔 글로벌 사모·인프라
투자사로 2017 년에 설립되었다. 아라는 산업·제조, 화학·소재, 에너지 효율·그린 연료,
식품·농업 분야 전반에서 실질적 감축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
발굴·스케일업한다. 휴스턴, 보스턴, 워싱턴 D.C., 더블린에 사무소를 두고
있으며, 2023 년 12 월 제 3 호 사모펀드에서 28 억 달러 이상의 약정을
마감했다. 2025 년 6 월 30 일 기준 운용자산(AUM)은 약 66 억 달러다. 자세한 내용은
www.arapartners.com을 참조하시기 바란다.

미디어 문의

수전 셀루라(Susan Cellura)

마케팅 &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| 유틸리티(Utility) | scellura@utilityglobal.com